



●● 침터의 장

마 음 의 촛 불 _ 그곳에는 정이 흐른다

고 사 성 어 _ 진식유도[陣寔遺盜]

한 권 의 책 _ 너무 일찍 나이 들어버린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영 화 이 야 기 _ ① 해리 포터와 불의 잔 ② 브로큰 플라워

연 극 공 연 _ 굿바이송

바둑묘수풀이 _ 맥이 풍부한 <현현기경>의 걸작

등 산 안 내 _ 서대산

골 프 안 내 _ 스윙의 기본



마음의 촛불

그곳에는 정이 흐른다

몸살이 나도 그곳에 가서 밥을 푸고 오면 낮고, 눈이 침침한 사람들에게 돈보기라도 구해다 주고 오는 날이면 기분이 뿌듯하다는,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은 환하고 따뜻하며 마음이 부유합니다.

서울역의 노숙자들이 모이는 곳은 난류와 한류가 부딪치는 대륙봉을 연상하게 됩니다. 먹고 입는 것을 나누는 생명의 출발점입니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하던 사람인지 몰라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다는 표현을 넘어섭니다.

유난히 눈이 많던 지난 겨울, 창 밖을 보며 낭만과는 조금 다른 정서로 따뜻한 집안의 빈 공간을 자꾸만 뒤돌아보았는데, 어느새 거리에는 꽃비가 날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추위는 면했으나 마음의 추위는 더 심할 것 같아서 봄도 야속해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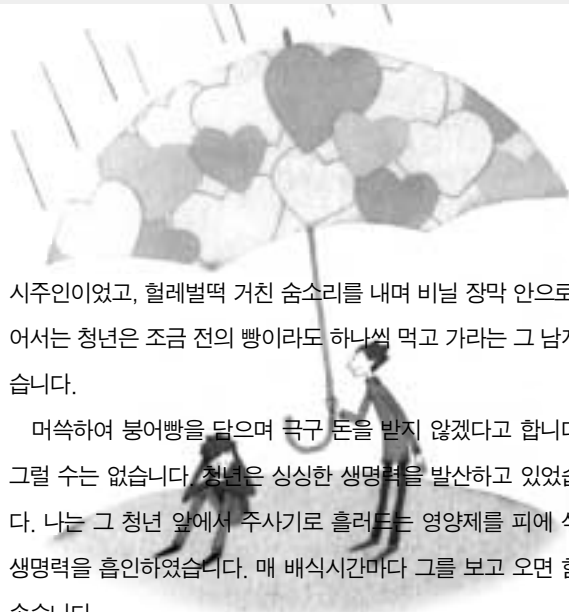
그들에게 가서는 어느 사람들과의 만남처럼 명함을 건네지 않아도 되고 자기 소개를 주고받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하고 조용하게 움직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엮어 밥을 퍼 미소와 함께 건네면 됩니다.

그들이 밥을 먹는 동안에는 잠시라도 평안을 빌어주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들로부터 받는 선물입니다.

그곳에는 노숙자 출신의 한 젊은이가 밝은 얼굴로 질서를 잡아 주는데, 청년들이 늦도록 봉사하고 돌아가는 날이면 빵이라도 하나씩 먹고 가라고 권합니다.

어느 날, 나는 그를 대신해서 빵집을 찾아 반대편으로 뛰었으나 빵집을 발견하지 못해 뿌연 비닐막 너머로 보이는 봉어빵집으로 갔습니다. 전봇대에서 줄을 늘이고 대롱거리는 백열등의 온기가 겨울밤을 녹입니다.

봉어빵을 굽는 여인의 손이 어설퍼 보인다고 싶었는데 그녀는 임



시주인이었고, 헐레벌떡 거친 숨소리를 내며 비닐 장막 안으로 들어서는 청년은 조금 전의 빵이라도 하나씩 먹고 가라는 그 남자였습니다.

머쓱하여 봉어빵을 담으며 극구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청년은 싱싱한 생명력을 발산하고 있었습니 다. 나는 그 청년 앞에서 주사기로 흘러드는 영양제를 피에 섞듯 생명력을 흡수하였습니다. 매 배식시간마다 그를 보고 오면 힘이 솟습니다.

몸살이 나도 그곳에 가서 밥을 푸고 오면 낮고, 눈이 침침한 사람들에게 돈보기라도 구해다 주고 오는 날이면 기분이 뿌듯하 다는,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은 환하고 따뜻하며 마음이 부유합니다. 아무도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냅니다.

“맛있게 드세요”라고 미소짓지 않고 밥만 건네면 아직 젊디젊 은 보람이에게 혼이 납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감동입니다.

삶이 망가진 사람들에게 ‘정신자세’ 운운하며 질타하기에 우리는 그들의 심정에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비난보다는 침묵이 낫고, 침묵보다는 따뜻한 손길이 낫고, 그보다 나은 것은 힘닿는 대로 자립의 길을 가도록 열어주는 사람과 열려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인생의 새 봄을 맞지 못했습니다.

오정순의 「지갑 속의 쪽지 한 장」 중에서



고사성어

진식유도[陣寔遺盜]

대들보 위의 균자를 깨우쳐 준 진식.

일찍부터 이루어진 중국과의 문화적 교류는 우리 정신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으며, 또한 중국의 사고 방식은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깊이 뿌리박고 있다. 오늘날 우리 생활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지식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고사나 속어, 명언 중에서 가장 함축성 있고 풍자적인 주옥같은 명구들을 소개한다.

한나라 때 진식이란 사람은 자를 중궁이라고 하며, 영천군 허현 사람이었다. 젊었을 때 허현의 말단 관리가 되었다가 그 후 낙양 태수의 서기가 되었다. 세상에 나와 출세하려는 뜻이 있어서 학문을 좋아했다.

앞으나 서나 책을 손에서 떼지 않고 오로지 공부에 열중하는 진식을 보고 현의 태수가 기특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대학에 들어가 학업을 계속하도록 허락했다. 학업을 계속한 끝에 태구현의 수령으로 임명된 진식은 태구현을 다스릴 때 법이나 힘으로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았다. 오직 덕을 쌓아 백성을 다스리고, 청렴하고 조용하게 정치를 했기 때문에 백성은 평화롭고 편안했다.

어느 날 하급관리가 진식에게 소송을 한 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자고 건의했으나, 진식은 이렇게 말했다.

“원래 소송을 하는 것은 재판을 통해 바른 것을 판정 받게 하는 것이네. 그러나 소송을 건 자를 제재하는 법을 어떻게 쓸 수 있겠는가?”

항상 바르고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정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없어서 소송하는 자도 없게 되었다.

그 후 태구현의 수령직을 그만 두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지방 사람들은 진식이 떠난 뒤에도 여전히 그를 사모했다. 고향에 있어도 자신이 치우치는 일이 없이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고 백성을 이끌었다. 그래서 항상 마을에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면 그때마다 바른 판결을 구하러 진식을 찾아왔다.



진식은 그 일이 잘못된 것인지 바른 것인지 잘 깨우쳐 주고, 또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올바르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판결에 대해서 원망하는 자가 없었다. 오히려 그 덕에 감사하고 마음 속 깊이 숭상하여 이렇게 말 할 정도였다.

“차라리 형벌을 받더라도 진식을 나쁘게 말하지 말도록 하자.”

어느 해 농사가 잘 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도적이 진식의 집으로 들어와서 대들보 위에 숨어

있었다. 진식이 속으로 눈치채고는 아들과 손자를 불러 모아 놓고 진지하고 엄숙한 얼굴로 훈계했다.

“모름지기 인간이란 스스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해야만 한다. 나쁜 사람도 원래부터 악인은 아니다. 나쁜 습관이 쌓여서 그것이 본성이 되어 결국 악인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지금 이 대들보 위에 있는 균자도 이와 같은 사람인 것이다.”

그러자 대들보 위의 도둑은 깜짝 놀라서 뛰어내려와 머리를 조아리고 자신의 죄를 빌면서 벌을 청했다. 진식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자네의 용모를 보니 나쁜 사람 같지는 않군,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가난해서 그날 그날의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일 거야.”

그리고 비단 두 필을 주어 보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그 현에 도적이 없어졌다. 그 뒤에 가끔 벼슬에 오르라는 명령을 받았지

만, 진식은 벼슬자리에 나가지 않고 자기 집에서 일생을 마쳤다.

그때 그 장례식에 간 사람이 삼만 명이었다. 또한 상복을 지어 서 입은 자도 백여 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두 돈을 거두어서 진식의 덕을 기리는 비석을 세웠으며, 조정에서는 문범 선생이라는 시호를 내렸다고 한다.

이한의 「지혜를 두드리는 인생의 아홉 가지 문 봉구」 중에서



한권의 책

너무 일찍 나이 들어버린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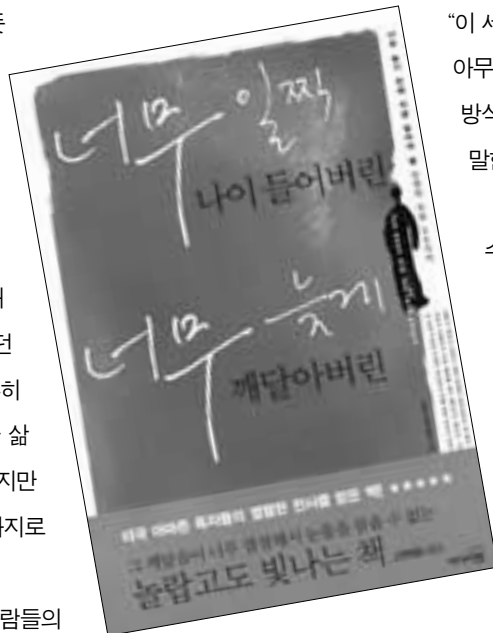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행복해질 확실한 방법을 제시하는 놀랍고도 빛나는 책, 만 권의 책을 압도하는 단 한 줄의 강력한 문장들로 꽉 차 있는 책…….

살다보면 누구나 꿈이 좌절되는 절망을 경험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혹독한 고통을 겪는가 하면, 뜻하던 일이 안 되어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자신을 추스르고 상황을 변화시켜나가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많이 달라진다.

〈너무 일찍 나이 들어버린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 누구나 알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인생의 진실 30가지〉는 우리가 살면서 흔히 부딪히는 고통과 절망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막상 실천하지 못했던 인생의 지혜를 30가지로 요약해 알려주는 책이다.

33년간 심리치료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상처를 치유해온 지은이는 “이 세상에 진실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전제하며, “시련에 대처하는 방식이 각자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고 잘라 말한다.

요컨대 이 세상에 인간의 의지로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이란 없고, 따라서 우리 삶의 행복은 우리 각자의 의지와 행동이 결정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두 아들을 각각 자살과 백혈병으로 잃는 커다란 시련을 겪은 지은이는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절절한 깨달음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마음의 감옥에서 나와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가지라고 말한다.

그 밖에 지은이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법, 결혼생활을 지혜롭게 이끌어 가는 법, 자녀들을 올바르게 교육시키는 법,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법 등 다양한 인생사를 다루면서 그 안에 감춰진 현실과 이상, 진실과 거짓 등을 명쾌하게 짚어준다.

이 책이 가지는 미덕 중의 하나는 무조건 강요하고 욱박지르는 대신 조용하면서도 부드럽게, 동시에 마음을 후벼파는 듯한 강렬함과 진솔함으로 읽는 이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의 목차이기도 한 인생의 진실 30가지는 그 문구 하나하나가 수만 권의 책을 압도할 만큼 강력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것은 진실이 갖는 힘이기도 할 터인데, 지은이는 아마도 우리가 이것들을 너무 늦지 않은 나이에 깨달을 수 있기를, 그래서 완벽하진 않더라도 조금씩 더 행복해지길 바랄 것이다.

저자 : 고든리빙스턴 / 역자 : 노혜숙 / 출판사 : 리더스북



영화 이야기

해리 포터와 불의 잔

사상 최강의 해리 포터, 더 강해진 그들이 온다.

조앤 K. 롤링의 집필 속도보다 빠르게 전진하고 있는 <해리 포터> 프랜차이즈의 제4막.

해리와 친구들이 성년의 문턱에 진입함에 따라 사춘기의 경쟁심과 권위에 대한 의혹은 짙어진다. 즉 2편부터 일관된 '점점 더 어렵게' 의 악상 기호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4편의 클라이맥스는 호그와트와 외국 마법학교 대표들이 겨루는 트리위저드 토너먼트, 그런데 선수를 지명하는 역을 맡은 <불의 잔>은 세 명의 7학년 생도와 함께 뜻밖에도(?) 해리를 호명한다.

목숨을 건 게임의 막다른 골목에서 소년은 다시 숙적 볼드모트와 맞서고 젊은 피의 희생이 뒤따른다. 죽음은 더 이상 해리의 삶에서 불길한 그림자가 아니라 현실이다.

쿼디치 월드컵, 세계 각지에서 날아든 용, 트리위저드 게임 등 <해리 포터와 불의 잔(이하 '불의 잔')>은 진작부터 영화적 스펙터클의 실현이 가장 고대된 장(章)으로 스태프 입장에서는 한숨이 나고 어린 관객의 입장에서는 소름 돋게 흥분되는 상황이다.





영문판 734페이지, 전편의 두 배에 육박하는 원작 분량 탓에 두 편으로 나눠 <매트릭스> 속편처럼 몇 달 간격으로 개봉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결국 150분 가량의 단일 영화로 만들어졌다.

이는 3편에서 각색의 묘를 살린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조연이기도 했다. 따라서 <불의 잔>의 시나리오, 잔가지 이야기는 원작의 독자들만 즐길 수 있는 '비밀의 방'으로 남겨둔다는 <해리 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의 대범한 전략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불의 잔>의 메가폰이 <네번의 결혼식과 한번의 장례식>, <도니 브레스코>, <에어 컨트롤> 등 복잡 미묘한 이야기에서 탄탄한 재미를 이끌어낸 마이크 뉴웰 감독에게 돌아간 것은 적절한 인선으로 보인다.

마이크 뉴웰 감독은 <불의 잔>을 기본적으로 격렬한 결투로 절정에 달하는 고전적인 스릴러로 파악한다.

“<불의 잔>은 매우 탄탄하게 긴장된 스타일을 훌륭한 스릴러다. 하지만 그 점을 제외하면, 꽃 장식이 필요하다. 버라이어티 쇼처럼 이 영화를 보러오는 관객은 엔터테인먼트를 기대하고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에 그것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마치 사상 최대의 할리우드 영화와 같다.”

해리 포터의 4학년에 새롭게 합류하는 배우는, 볼드모트로 등장하는 랠프 파인즈, 골칫거리 과묵 '어둠의 마법 방어술' 담당교사로 새로 부임한 매드 아이 무디 역의 브랜든 글리슨, 해리의 첫 사랑 초창기로 3천명의 경쟁자를 물리친 케이트리 룡, '배너티 페어'로 얼굴을 알린 케드릭 디고리 역의 로버트 패틴슨 등이다.



영화 이야기

브로큰 플라워 <also known as : 꺾인 꽃들, 망가진 꽃들>

의문의 옛 연인에게서 온 분홍색 편지, 내게 19살 짜리 아들이 있다고?

독신을 굳건하게 고수하는 '돈'은 사귀고 있던 애인 '셰리'에게 결별선언을 당하고도 무심히 TV만을 응시하다 잠이 들뿐이다. 이렇듯 나른하고 무기력한 생활을 청산하려 들지 않는 그에게 수수께끼 같은 발신인 불명의 분홍색 편지가 우편으로 도착하고, 그 편지로 인해 '돈'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옛 연인으로부터 온 편지에는 '돈'에게 19살 난 아들이 있으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 떠났다는 내용이 써 있었다.

수수께끼의 단서, 잊었던 여인들의 추억을 찾아 떠나다.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이웃이며 아마추어 탐정을 자처하는 '윈스턴'이 꼭 이 수수께끼를 조사해야 한다고 들들 볶는 바람에, 주

저주저하면서도 '돈'은 수수께끼의 단서를 쥐고 있을지 모르는 네 명의 옛 연인을 찾는 여정에 나선다.

독특한 개성을 지닌 네 명의 여인들은 갑자기 찾아온 '돈'을 보고 놀라지만 그녀들 역시 '돈'에게 놀라움을 선사한다. 점차 '돈'은 무방비로 자신의 과거, 그리고 결과적으론 자신의 현재와 마주하게 되는데...



연극공연

굿바이송 <사랑을 빙자한 몇 가지 장면들>

시대적 코드를 넣은 사랑과 이별 이야기

모든 예술 장르의 가장 흔한 소재는 <사랑>이다. 그것의 깊이와 종류는 무척 다양하지만, 크든 작든 우리의 일상 속에 매일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애국심과 모성애와 같은 심오한 사랑이 있는가 하면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살아있는 로맨틱한 감정도 있다. 무겁든 가볍든 그것이 타오르는 순간은 아름답지만, 깨어지는 순간은 가슴 아프면서도 타인의 시선으로 보면 종종 우습기도 하다. 어렵게 이어온 관계란 얼마나 우습게 깨어지는지.....

사랑은 평범하다. 하지만 사랑은 절실하다.

사랑은 평범하기에 누구나 사랑을 하고 비슷한 주기의 만남과 설레임, 헤어짐을 반복하며 또다시 꽤나 아파하다가 대충 그런식

으로 마무리 되기 십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아파하는 슬취한 친구의 전화를 이제는 얼렁뚱뚱 받아 넘기고 대충 후렴구 넣어가며 마무리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랑은 절실하기에 흔하고 유치하다고 비웃으면서도 조금도 양보할 수 없고 일말의 망설임 없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힘이 존재한다.

가장 평범한 사랑노래가 정말 참피하게도 가끔 마음 한켠을 강하게 흔드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그렇고 그렇다.

극단 <떼아뜨르노리>의 <굿바이송>은 젊은이들의 일상 속에

사랑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들의 기억들이 무참히 깨어지는 순간들, 그리고 잔인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순간들을 코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아픈 4가지 에피소드로 무대화 하였다.



유행가 가사같이 통속적인 우리 인생

네 가지의 에피소드가 옴니버스 형식으로 전개되므로, 매 장마다 무대 전환이 불가피하다. <굿바이송>은 무대 전환 시간도 극의 흐름을 연결하는 하나의 부분으로 간주하고, 전환 도중 출연 배우 중 한 사람이 무대 한 쪽에 마련된 또 하나의 무대에서 MR에 맞추어 라이브로 유행가를 부른다.

이전 상황의 흐름을 이어가고자 하는 시도임과 동시에 <유행가>라는 것의 보편적 정서와 시대성을 차용하고자 함이다. 하나의 메가히트곡을 듣는 순간, 동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은 그 시대를 떠올리게 되고, 그 당시의 자신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실연하고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 노래로 대신하는 사람도 흔하다.

너무도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아름다운 추억 혹은 지우고 싶은 기억도 지나고 나면 유행가 가사처럼 거기서 거기인 것을. 우리의 인생은 그저 어쩔 수 없는 통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가요를 통해 되새기고자 한다.

■ 시놉시스

제1화 / 슬픈 배카프리오

고은, 수민, 지연은 배우를 꿈꾸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스물여섯 동갑 고향 친구들. 어느 휴일 마지막 일어난 그녀들은 중국집에서 음식을 시킨다. 기다리는 동안, 그들 모두가 중학교 때 짝사랑하던 동네 스타 '배카프리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에 대한 각종 가십과 환상은 이야기 도중 점점 더 부풀려진다. 영화배우가 되어 이제 곧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 거라는, 자신들의 희망이 투영된 그들의 기대가 절정에 다다를 무렵 기다리던 자장면이 배달되어 온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한, 첫사랑의 환상이 무참히 깨어지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

제2화 / Happy Birthday My Love

캠퍼스 커플인 현석과 고은은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다. 고은은 패션회사에 막 입사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현석은 각종 고시에 모조리 낙방한 후 현재는 경찰시험을 준비중인 취업 준비생이다. 고은의 생일날, 늘 가던 추억의 장소에 가자는 현석의 제의를 뿌리치고 고은은 청담동에 위치한 최고급 불란서 레스토랑으로

현석을 데리고 간다. 비싼 옷을 걸치고, 어느 새 배웠는지 불어로 능숙하게 주문을 하는 등, 고은은 다른 사람 같다. 그들의 대화는 곱돌기만 하고, 고은은 그저 사진 찍어서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릴 궁리만 한다. 고은의 허영이 절정에 달할 무렵, 현석은 큰 소리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자리를 뛰쳐나간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월급의 반 정도에 달하는 계산서 뿐…….

제3화 / 인생은 공평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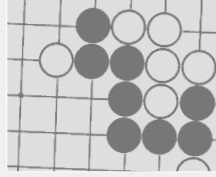
기묘한 분위기의 무대, 죽은 듯 누워있는 한 남자와 반쯤 정신이 나간 듯한 여자, 이제 막 정사를 끝낸 듯한 방의 분위기는 기괴하기까지 하다. 남자를 향해 미칠 듯한 열정을 고백하는 여자, 어느 순간 죽은 듯했던 남자는 벌떡 일어나 자신의 옛날 얘기를 들려주며 '인생이 공평하다'는 알듯 모를 듯한 주장을 펼친다. 아침을 먹고 가라는 여자의 손을 뿌리치고 오늘이 자기 결혼식이라며 획 떠나는 그, 암전 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극, 그 뒤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제4화 / 천일 동안

사건 지 천 일을 맞이한 젊은 커플은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한 온갖 이벤트를 벌인다. 폭죽과 와인, 추억의 회상, 천 마리의 학과 더불어 사랑 고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분위기의 커플. 청혼가를 부르며 한바탕 춤을 추고 난 남자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여자에게 프로포즈한다. 잘 맞지 않는 반지를 끼워 주고, 여자가 대답하려는 순간, 남자의 전화벨이 울리는데 '롤플레잉 닷컴'이다. 여자는 인터넷 역할대행 서비스에서 나온 아르바이트 생으로 그의 떠나간 애인을 대신해 이벤트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진짜 애인을 만나러 간 여자의 남자 친구와의 대화도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 공연안내

- △공연기간 : 2005년 11월 11일~2006년 1월 28일
- △관람등급 : 14세 이상
- △공연장 : 소극장 상상아트홀(블루관)
- △좌석유형 : 비지정석
- △공연시간 : 평일 20시 00분 / 토요일 16시 30분, 19시 30분 / 공휴일 15시, 18시<월요일 쉼>
- △문의 : 02-741-3934



바둑묘수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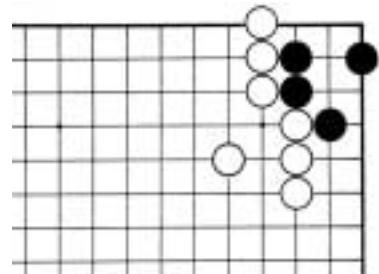
맥이 풍부한 <현현기경>의 걸작

바둑은 전략이다. 바둑은 두뇌싸움이다. 두뇌를 쓰지 않고, 전략을 세우지 않고 이기겠다는 욕심 하나로 전장에 뛰어드는 병사는 하루살이 꿀을 먼치 못한다.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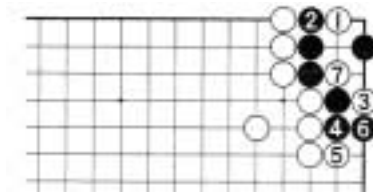
白선. <현현기경>에 나오는 문제이다. 돌의 수효는 적으나, 여러 가지 맥을 포함하고 있다.

※현현기경 : 중국의 원나라 시대의 명수 안전장과 엄후보의 공저로 정석과 대국보로 되어 있다.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은 문제 풀이라고 한다. 이것은 현재도 감탄하여 마지않는 걸작들이다. 한국이나 일본에 전해진 것은 사본이고, 원본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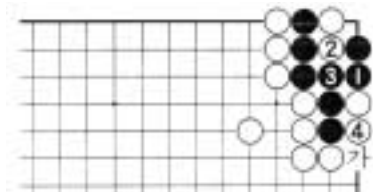
[정답도]

白1의 치중에서 시작하여, 白3으로 제1선에 끼붙이는 것이 묘수이다. 黑4에는 白5로 누르고 7로 끊으며 양단수가 되어 黑이 잡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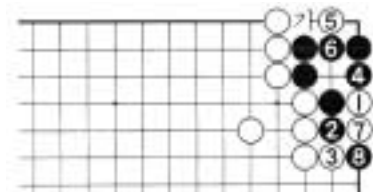
[1도]

정답도의 黑6으로 본도의 黑1에 둘 경우, 白2에 단수 친 다음 4에 두면, 역시 黑을 잡을 수 있다. 黑가로 따도 白4에 먹여쳐 두 집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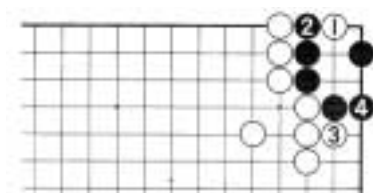
[실패 1도]

白1을 먼저 두고 5에 치중하는 것은 수순 착오로 실패이다. 黑6으로 두게 되어 白7을 해봐도 黑은 8로 잡은 후, 가와 7이 맞보기가 된다.



[실패 2도]

白1의 치중은 당연하다 치고, 평범하게 白3으로 막는 것은 黑4로 간단히 살게 된다. 정답도의 白3에 끼붙이는 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풀 수 없다.





등산 안내

서대산

서대산은 암산으로 그 산세가 웅장하고 아름다울뿐 아니라, 정상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암반으로 주변 서대전 시가지와 금산 옥천 일대가 조망되는 충남의 최고봉이다.

서대산은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와 군북면 보광리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904m이다.

충청남도 남동부의 금강분지를 둘러싸고 있는 금산고원에 속해 있으며, 노령산맥을 이루는 정수이자 충청남도의 최고봉이다.

옥천에서 서남쪽으로 직선거리 10km 지점에 있다. 남서쪽의 대둔산(大屯山 878m), 남쪽의 국사봉(國師峰 668m)과 함께 동쪽은 충청북도, 남쪽은 전라북도와의 경계를 이룬다. 또한 동북~남서 방향으로 뻗어 있어 면의 경계를 이룬다. 주위에 방화봉·장룡산 등이 있다.

산마루는 비교적 급경사이며 남쪽으로 갈수록 점차 완만해진다. 서쪽 사면은 넓고 경사가 완만하며 이곳에서 흐르는 계류들이 서대천(西臺川)을 만든다.

동쪽은 100~400m 사이의 완만한 사면이 발달해 있는데, 한반도 중부 이남에 발달한 사면 지형의 하나로, 금산인삼 재배에 이용된다.

서쪽 기슭의 추부면 요광리에는 행정은행나무(천연기념물 84)가 있다. 정상 바로 아래에 있는 옥녀 탄금대에는 샘이 있는데, 이 영수(靈水)를 7번 이상 마시면 아름다운 미녀가 되어 혼인길이 열리고 첫아들을 낳는다는 전설이 있다.

정상에서 북쪽 546봉으로 이어지는 능선 주변에는 장면대·북두칠성바위·사자굴·쌀바위 등이 산재해 있다. 협곡을 가로질러 높게 설치된 약 50m의 구름다리 주변은 기암절벽들이 어울려 장관을 이룬다.

구름다리에서는 다리 밑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과 능선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다리 밑으로 내려가서 유원지 쪽으로 가는 길이 경관이 좋다.

서쪽 사면 중턱에는 원흥사(元興寺)·개덕사(開德寺) 등이 있으며, 서쪽산 기슭에는 신라 문성왕 때 무양국사가 창건하였다는 서대사(西臺寺)가 있었다고 한다.

옛날 서대사에서 출판하였던 <화엄경>이 국내의 여러 절에 있는 것으로 보아 서대사는 규모가 크고 불사도 활발하였던 사찰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산의 이름은 서대사에서 유래한다.

전체적으로 산세가 온후하면서도 웅장하고 경치가 좋으며 용바위·신선바위·장군바위·마당바위·노적봉·서대폭포 등의 관광자원이 산재



해 있고,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산꼭대기에서는 대전 시가와 옥천·금산 일대가 시원하게 내려다보여 주요관광지로 꼽힌다.

또한 산세가 원뿔형이며 암산(巖山)으로 이루어져 있어 암벽등반을 즐기는 산악인들이 많이 찾는다.

서대산에 오르는 길은 대전 남쪽의 마전에서 옥천 쪽인 성당리 서대산 입구로 가는 방법과, 옥천에서 마전으로 이어진 37번 국도를 따라 서대산 입구 삼거리로 가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등산객들은 대전을 등산 기점으로 잡는다.

휴양단지의 주차장을 기점으로 하여 마당바위 → 신선바위 → 구름다리 → 장군바위 → 정상 → 돌탑지대 → 개덕사 → 휴양단지 주차장 코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주변에 농구장, 회전그네, 모노레일, 코끼리열차, 스카이사이클, 야외수영장, 양궁장, 석공장, 미니사격장 등의 위락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가까운 곳에 칠백의총·닭이봉·대둔산도립공원·금강유원지·탄금대·마니산·옥계폭포·심천유원지 등이 있다.



등산코스

등산로는 산세가 동북쪽에서 서남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동쪽은 산세가 급하여 (군북면)등산로가 없고 추부면 방향으로만 등산로가 나있다.



△제1코스 : 서대산종합관광휴양지 → 구름다리 → 바위능선 → 정상 <2시간 30분 소요>

△제2코스 : 원흥사 주차장 → 정상 <2시간 소요>

△제3코스 : 개덕사 → 개덕폭포 → 용굴 → 탄금대 → 정상 <2시간 소요>

△제4코스 : 재말재 → 546봉 → 바위능선 → 정상 <3시간 30분 소요>

교통안내

서대산을 찾아가는 교통편으로 경부고속도로는 옥천IC를 대전고속도로는 추부IC를 나와서 국도37호(금산 → 옥천)선을 타고 가면 평촌리와 신평리에 이른다.

△경부고속도로 옥천IC에서 평촌리까지는 약 20km

△대전고속도로 추부IC에서 신평리까지는 약 4km

서대산종합관광휴양지 코스와 개덕사, 재말재 코스는 평촌리로 들어와야 하고, 원흥사 코스는 신평리 3거리에서 지방도 601호선을 타고 들어오면 이내 성대초등학교가 나타난다. 이어 서대산 등산초입을 알리는 원흥사 입간판이 나타난다.

※ 참고로 국도37호선 추부면 요광리에는 천연기념물84호로 지정된 유명한 은행나무가 있다.



골프 스윙의 기본 ②

최근들어 골프 애호가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골프가 대중들에게 인기있는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다. 따라서 본지는 골프기술의 향상과 골프의 참모습을 이해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스윙의 기본부터 드라이버, 페어웨이 우드, 롱 아이언, 미들 아이언, 숏 아이언, 어프로치 샷, 벙커 샷, 퍼팅, 트러블로부터의 탈출법, 나이스 샷, 등의 순으로 연재할 계획이다.

왼손을 겹치면 어깨 돌리기가 쉽다

스트롱 그립으로 잡으면 백스윙에서 어깨를 돌리기가 수월해진다. 왼손을 겹치면 왼손 손등이 목표의 약간 오른쪽을 향하게 되고 왼손 손등이 오른쪽을 향하면 손을 옆으로 올리기가 쉬워져, 따라서 어깨도 돌리기 쉬워지는 것이다.

오버스윙은 어깨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클럽을 올리려고 하는 데서 일어난다.

다운스윙은 몸의 왼쪽 사이드가 리드

다운 스윙은 몸의 왼쪽 사이드로 리드한다. 오른손으로 서둘러 치지 않고, 몸의 왼쪽 사이드로 잡아당기는 것이다. 왼손 손등을 몸의 정면으로 향한 채 그립엔드를 볼을 향해서 내리도록 하십시오.

왼손 손등을 몸의 전방을 향해서 클럽을 내리치면 임팩트의 순간 페이스가 벌어진 채로 볼을 잡게 되고 말 것 같은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스트롱 그립이라면 그런 걱정은 필요없다. 오히려 헤드를 빨리 되돌리려고 오른손으로 치려고 하면 헤드가 비행선(飛行線) 밖에서 들어와 슬라이스볼이 나오기 쉬워진다. 허리가 당겨진다든지 혹은 웨이스트가 오른쪽에 남아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왼손 손등을 몸의 전방으로 향한 채로 왼쪽 사이드로 스윙을 리드하라. 클럽은 저절로 인사이드에서 내려오게 된다.

스트롱 그립에서는 왼손 손목을 몸의 전방으로 향하게 하고, 헤드를 늦추어 오더라도 페이스를 스퀘어로 되돌릴 수 있다.

